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주택지구를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색채로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희한한 풍경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 소학교, 초급중학교, 약국, 종합진료소, 위성원, 태양열온실 등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들이 아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졌을뿐아니라 질 좋은 가구비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모든 집들에 당에서 마련한 천연색TV와 이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면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살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새세기 교육기지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시공하였으며 종합진료소와 약국 등 보건시설들은 물론 위성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도 성의껏 잘 지었다고 평가하시였다.

과학자들이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게 공원들도 멋있게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체육공원은 전문체육시설 못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주택지구에 과학자들을 위한 터밭도 조성해놓고 배추, 무우를 비롯한 난새들을 재배하고있으며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온실까지 멋들어지게 건설해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함께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질적으로 했다고 치하하시였다.



실업구처리를 잘하라고 하였는데 개구 좌우권에 장식장을 설치해주시 특색있다고 평가하시였다.

당에서 마련해준 보기에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찬장, 책장, 소파, 침대 등 고급가구와 비품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았다고, 여기에 천연색TV까지 놓아주면 교육자들은 물론 주부들과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수 있게 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고급호텔같다는 일군들의 반응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려졌다고, 집주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근위부대, 영웅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시대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6층에 올라 날로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있는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선 대동강호안을 따라 건설하고있는 미래과학자거리로 세계적인 과학자거리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또 하나의 이상적인 주택지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기간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한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우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안겨갈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

이 없다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하며 그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은정과학자주택지구와 같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더 건설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전변시키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이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기술성파로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에 입사하게 될 과학자들과 함께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개 호동

의 46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대동강에 떠있는 뚝배기라고, 외벽에 열선반사판유리까지 씌우니 정말 멋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결작품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1현관 5층 1호, 46층 1호와 기단층부분에 건설한 상점과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들의 부엌과 식사실, 서재, 부부방 등을 구성구석 훌륭하게 없이 시공했으며 살림방 벽면처리도 세련되게 하였다고, 특히 전

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시대의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6층에 올라 날로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있는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선 대동강호안을 따라 건설하고있는 미래과학자거리로 세계적인 과학자거리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신 대와 더 불어 빛나는 민족성

이 땅에서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고 개화발전하고 있다. 민족성이 넘치는 조국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제부로 절감하는 것은 절세의 애국자를 령도자로 모셔야 민족의 우수성과 그 전통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진다 것이다.

민족성은 민족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이자, 민족성에 하나의 강도와 언어, 문화를 가지고 한 강도에서 살아있는 우리 겨레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 민족자주정신이 체현되어있다. 민족성은 민족성생존의 기초이며 민족번영의 생명선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민족성을 매우 중시하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신 아버지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이 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성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온갖 로고와 실험을 기울이시였다.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존심,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데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길수록 조상전래의 풍습도, 인민들의 생활감정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적재부들은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주체97(2008)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서 김책시 립명당에 있는 력사유적 복판대 첩비를 돌아보시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의병태가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복판대첩비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력사를 연구하는데서와 민족제일주의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귀중한 력사유적이라

고 하시면서 잘 보존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의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문화적재부를 잘 보존관리하도록 하신 그의 보살핌과 가르치심은 평양의 대동강기슭 련평강앞에 있는 백선행기념관에도 깃들여있다. 그 석조건물은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한 녀인의 애국적지성에 의해 지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기념관인상복구형성안에 대해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기념관의 내외부를 원상대로 훌륭히 꾸려 백선행의 애국적소행과 더불어 민족적정신을 함양하는데 후세에 길이 전해지도록 하시였다.

민족적품성은 민족성의 집약적인 발현이다. 민족명절과 민족놀이, 민족의상과 민족음식, 인사례법 하나하나에도 민족의 슬기와 정기가 그대로 숨배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민족명절을 더 뜻깊게 씬으로써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생활전통을 잘 살려나가기로 하시였고 아이들이 즐겨노는 유희오락의 가지적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는 우리 인민들은 설명절과 같은 명절놀이에서뿐 아니라 로동생활, 문화생활, 의식주생활, 도덕생활 등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전통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창조한 민족전통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민족적유산이라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족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교상

한 사상감과 례의도덕,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어있다고, 우리는 세상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전통을 가지고있다는 높은 긍지를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는다. 여기에는 민족의 본래를 떠나고 민족을 생각할수 없다는 깊은 뜻이 들어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1월 어느날 원산청년발진소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택마을을 찾으시고 한 로동자의 가정을 방문한 민족적유산이라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집안벽에 메주덩이를 매달아놓았는데 멋있다고, 농촌에서만 볼수 있는 류다른 풍경이라고, 이런것이 사회주의풍경이라고, 벽에 메주덩이를 매달았는데 왜보물 창고보다 더 보기 좋고 메주쁜 냄새가 구수한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메주덩이를 만져도 보시고 두드려도 보신 그이께서는 메주로 만든 식품의 약효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메주장은 심장혈관이 경화되는 것을 막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한다고 한다. 흔히 곰팡이는 암을 발생시키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메주장을 먹으면 암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그외에도 메주장에는 장수에 필요한 성분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실 때 류달리 감흥을 자아낸것은 옷방벽에 가지런히 매달려 메주덩이였다. 그이께서는 만

을 하면서 혈관들이 깨끗한것을 보고는 확실히 메주로 장을 담그어 먹는것이 좋다고 한대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아시는 《메주의 세계》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조상전래의 식생활문화가 비싼 풍가공방법과 식품 하나를 놓고서도 민족의 문명수준과 향취나는 아름다운 생활풍,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성을 헤아리시며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깊이 이어가도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민족의 녀과 지혜가 깃들어있는 씨름경기를 두고도 민족성을 고수하는 특색있고 인기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송암명기소목장의 황소를 경기의 시상품으로 하도록 정해주고 제1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씨름경기정형과 900kg이나 되는 황소의 무

게도 알아보시며 앞으로 대황소상씨름경기를 전통화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유서깊은 모란봉에서 대황소상 금소방울소리가 온 나라에 울리게 되었으니 그제 얼마나 좋은가고 호랑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민족적전통을 살려 조선민족의 기호와 감정을 반영하여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지향시키신 위대한 장군님. 그의 뜨거운 민족애에 받들려 인민대학습당이며 평양대교장, 인민문화회관, 옥류관 등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민족적색채에 현대미를 조화롭게 갖춘 창조물들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쓴바 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생활이 미국식, 일본식, 서양식이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이것이 미국의 식민지, 이 땅의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자기것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땅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자기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적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품미해나가고있다. 북에서는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이 개화만발하고있는데 이 땅에서는 외세의 전횡과 폐륜페덕이 민족의 얼을 쪼먹고 마비시키고있다. 이 땅에서는 선조들이 창조한 유산들이 심히 약탈, 파괴되고있지만 북에서는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민족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어 민족의 향취를 풍기고있다. 얼마나 부러운 현실인가.》

품들이 가꾸고 꽃피우는 손길을 떠나 만발하는 화원을 열각할수 없는것처럼 민족의 얼이 살아있고 정기가 차넘치는 이 땅의 현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평양민속공원의 일부

새 력사를 쓴다

지난 8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천리마라 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생겨난지 얼마 안되지만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국산화를 실현하고 질 좋은 고급 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제품을 다량 생산하는것을 보이고 그이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공장들의 새 력사를 쓰라고 하시였다.

공장의 새 력사를 쓰자. 그의 말씀에는 현대적으로 건설되고 세계적 경쟁파동에도 구애됨이 없이 경제성을 높일수 있는 공장인만큼 타임에 대한 국내수요 충족은 물론 장차 해외시장에도 수출할수 있는 전망이 큰 공장에 대한 고무와 기대가 담겨져있다.

그날 현지 지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조하신것처럼 제품의 색과 규격을 다색화, 다양화하고 사람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새로운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며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현대화, 다기능화하여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세워 수화되던 공장으로 변모가 일선되면 공장은 자기의 연혁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이다.

새 세계 산업혁명의 기치 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삭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평양의 유서깊은 만경대갈림길에는 세월의 류수에도 지워지지 않는 강동깊은 이야기가 깃들여있다. 지난 세기 항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일 먼저 찾으셨던 것은 고향 만경대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향집보다 찾으셔야 할 곳이 너무도 많으시였다. 산일시절 하나 변변한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나라를 세우고 인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해나가는 그때 어에서나 요구되시는 강재였다. 지척에 있는 고향과 강선제강소(지금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가는 길이 갈라지는 만경대여기의 갈림길에서 이르시여 차를 세우도록 하시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속도록 그리운 조부모님들

비약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합친 육체로동을 정신로동, 지능로동으로 전환시키고 적은 원가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는 생산기지로 만들도록 하자는것이 산업혁명의 목표이다.

새 력사를 쓰는것은 천리마라일공장뿐이 아니다. 10월8일공장, 천지운활유공장들도 그러하다. 10월8일공장은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의 발전추세를 통찰하시고 이미 있는 건물을 통해 들어내고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히 일신시키도록 할 데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생산성비의 갱신주기도 급격히 단축되어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지금과 같이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 구축, 최첨단설비와 팽년방체제도 도입 등으로 정보화, 수자화된 공장, 에너지를 절약형공장으로 훌륭히 건설된것이다.

천지운활유공장 역시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경제면모가 기술집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상응하게 건설된 모든 생산

공정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 수자화된 산업시설이다. 건물의 건축형성으로부터 국산화된 연료, 원료문제해결 그리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한 새 산업시설들의 면모는 그대로 경제강국으로 떠오르는 조선의 자립경제의 발전상과 그 위력을 뚜렷히 실증하고있다.

경공업발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술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양양산공장이 새 세기 식료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되었고 평양양산공장과 정력적이고 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기업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함께 문화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하루빨리 이 땅위에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뜻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계적 안목과 통근 구상, 혁신적인 발기와 목표는 문명창조의 척도로 되고 그이의 당대한 결심과 정력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는 문명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 력사를 창조하고있다. 1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

교, 병원,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아동공원,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은하과학자거리 세운것, 말도 령을 넘기 힘들어 쉬고 갔다는 마식령의 천연산지에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스키장을 몇달여만에 건설한 기적 같은 현실은 문명국을 건설하는 조선의 기상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옥류아동병원, 룡라인민체육공원, 인민야외빙상장, 창진소학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문수물놀이장, 미림소마구락부 등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보건, 체육, 교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가 빛나게 구현된 창조물들이다.

생산은 오늘, 과학은 래일, 교육은 모래라고 하는바지만 교육수준과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명운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중대사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 미래사랑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교육분야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 실시와 같은 큰 걸음으로 력사의 새 페이지를 쓰고있으며 그이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혈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리상과 꿈이 실현되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얼마전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모습을 비유하며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나라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밀고밀한 길을 걷고있는 원수님께서 오늘에는 과학자들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주택지구까지 통채로 안겨주시고있으니 받아안은 사랑은 생겼으니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맺히고 흘렀다. 정경철

체육중시령도에 의해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일고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는 전례없는 경기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축구, 럭비, 체조 등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마나같이 러놓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믿음과 사랑이 우승의 비결이라는데 있다.

그들의 말을 빌면 체육분야에서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문명이 창조되는 공화국의 새 력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쓰신다고 해야 할것이다.

만사람의 축하와 찬사를 받는 그들의 모습에는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리 실

밝고 푸른 하늘을 떠이고 대박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단군릉을 찾으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주체적인 력사관의 관실함에 있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어 마침내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었다.

단군유골의 발견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실체를 정확히 밝혀주시고도 연구사

확히 밝혀주시고도 연구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 5011(±267)년전에 태어난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므로 조선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오랜 력사국이며 조선민족은 단군릉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서인 문명한 민족이라는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평양은 조선민족의 성지이며 조선민족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라

새로 생긴 67개의 좌석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지난해 11월 량강도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실 때에 있던 일이다.

어느날 군에 있는 문화회관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회관의 리용실태와 군내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군에술소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화상영은 어찌한가도 물으시고 회관청의 조명상태도 가능해보시며 회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가운데로 중간층에 이르시여 관람석의 한 자리에 앉으시였다. 이어 관람석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가운데를 왜 이렇게

넓게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가운데층로는 공연관람때마다 일군들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기 위해 남겨둔 공간이 없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공간을 무심히 대하지 않으셨던것이다. 일군들의 마음속에 생긴 큰 빈구석으로 여기셨던것이다. 군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아글라글 노력하여야 한다.

그후 회관의 가운데층에는 67개의 좌석이 더 생겨났다.

본사기자

뒤에 앉으시여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슭의 평원자리에 개건한 단군릉터를 정해주시고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잘 세우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단군릉을 조선민족의 원시조를 무덤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규모와 형식이 있기까지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기인 1994년 7월 어느날에는 단군릉의 최종형상을 보이고 빨리 건설하여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다 와보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승고한 뜻을 이어 단군릉을 빠른 기간에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단군릉을 위해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철학과 자재, 설비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전반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단군릉이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축물이 되게 시대성과 전통적민족풍습의 판례를 잘 살려 건설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1994년 10월 어느날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천년 력사의 풍운속에 신화로운 전제로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릉을 완벽하게 개건하여 유구한 조국의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감지할수 있게 하여주시는 것은 조선민족의 대경사로, 일대사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단군릉은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증시하는 기념비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로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승고한 민족애에 받들려

동방을 막았으니여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슭의 평원자리에 개건한 단군릉터를 정해주시고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잘 세우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단군릉을 조선민족의 원시조를 무덤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규모와 형식이 있기까지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기인 1994년 7월 어느날에는 단군릉의 최종형상을 보이고 빨리 건설하여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다 와보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승고한 뜻을 이어 단군릉을 빠른 기간에 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단군릉을 위해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철학과 자재, 설비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전반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단군릉이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축물이 되게 시대성과 전통적민족풍습의 판례를 잘 살려 건설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리경순

갈림길이 전하는 사연

긴긴세월 꿈속에서도 그리던 만경대갈림길을 찾지 않으면 고개 조국건설을 위해 먼저 강선으로 향하시였다. 고향이 그리울수록 그보다 먼저 새 조국건설을 위해 찾아야 할 공장과 농촌들을 생각하시였고 기다리시는 조부모님들보다 새 조국건설의 주인공인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지척에 있는것은 고향이

도 선군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피눈물속에서 그이께서는 만경대갈림길을 생각하시며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국을 수호할 결사의 의지를 가다듬으시고 결단고선군의 길을 택하시였다. 그 선군의 길에서 휴식날, 명절날, 자신의 탄생일도 다 잊으시고 오로지 조국수호, 조국번영을 위한 로고와 심

체육열기를 드높인 뜻깊은 하루

은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속에서 지난 12일 공화국의 각지 인민들은 체육절을 뜻깊게 보내었다.

석탄공업성, 료해운성,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락랑은하피복공장,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학교들에서는 대중물동체조, 건강레전도도법출연, 장애물극복경기, 축구, 배구, 룡구, 탁구 등 다채로운 대중체육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제19차 백두산상 중

양기관일군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만수대장작사에서 부서별구기종목대항경기가 벌어졌다. 대중체육활동을 정상화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작업원들의 열기로 하여 이날의 체육경기는 집단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더욱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 1푼이 되는 뜻깊은 날에 체육절을 맞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직공들은 세상에 물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일떠세워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바를당기기와 배구 등 유쾌한 체육유희오락경기를 펼치며 이날을 뜻깊게 보내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학습과 교육과학사업에서 혁신을 기록하고있는 긍지를 안고 탁구, 배구, 룡구, 집단달리기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평양남북도, 강원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체육절의 하루를 의의있게 보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 조공이라도 이바지할 일념으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남포, 인포, 송남청년관공을 비롯한 북창지구의 란관들에서는 높은 생산성과로 체육절을 보내는 란부들의 합성이 메아리쳤다.

강원도에서는 도인민위원회와 동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일군들부리가 체육절에 진행할 체육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데 기초하여 모두가 높은 열의를 안고 경기들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날 부서호상간 진행된 룡구와 배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들은 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이번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도의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은 체육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신의주신발공장, 홍주담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등에서 펼쳐진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로동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백배해주었다.

강계경기장에서는 강계시의 동별체육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중물동체조,

육실원장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가니 모든 일이 더 잘되고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함흥광장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소년물동체조, 소년레전도, 무릎싸움, 제기차기, 연퍼우기, 통일달리기, 줄넘기, 씨름, 팽이치기 등 다채로운 놀이와 경기들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

체육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진행된 체육활동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부강강국건설에 이바지해나가는 각계층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공안고달리기, 100m달리기 등 여러 종목의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지난 기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립만한 자들의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함흥광장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소년물동체조, 소년레전도, 무릎싸움, 제기차기, 연퍼우기, 통일달리기, 줄넘기, 씨름, 팽이치기 등 다채로운 놀이와 경기들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

체육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진행된 체육활동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부강강국건설에 이바지해나가는 각계층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얼마전 중국에서 진행된 제45차 세계기체제조선선수대회 남자, 여자조마운등에서 공화국의 리세광, 홍은정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70여개의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홍은정선수와 리세광선수들은 최고급난도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15.599점, 15.416점이라는 점수로 맞닿은 선수들을 누르고 단연 1위를 하여 어머니 조국에 또다시 승리의 보고를 드렸다.

그뿐이 아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선수들이 거둔 승리의 소식은 지금도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다.

인민체육인 엄윤철선수

가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우승하여 첫 금메달을 따냈다.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어 김은국선수와 리정화선수가 1위를 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김은주, 김은향선수들도 여자력기의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홍은정선수와 리세광선수들은 최고급난도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15.599점, 15.416점이라는 점수로 맞닿은 선수들을 누르고 단연 1위를 하여 어머니 조국에 또다시 승리의 보고를 드렸다.

그뿐이 아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선수들이 거둔 승리의 소식은 지금도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다.

인민체육인 엄윤철선수 특히 공화국의 여자축구

선수들은 인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맞닿은 모든 팀들을 이기고 결승경기에서 세계선수권을 보유한 일본팀을 3: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기고 아시아의 패권을 틀어쥘으로써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였다.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립이 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공화국의 체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고 온 나라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고무적 힘으로 되고있다.

체육인들의 경기성과에 힘 얻어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체육바람, 체육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는 우승의 소식들

기 75kg급경기와 체조 평균대운동에서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남자자유형레슬링 57kg급경기에서 우수한 정학진선수, 남자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1등을 한 김지성선수, 여자권투 75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장은희선수, 탁구 혼성복식경기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 김혁봉, 김정선수들... 특히 공화국의 여자축구



체육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성황을 이룬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공화국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장에서 일으킨 승전열풍과 더불어 온 나라에 크나큰 민족적준비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었다.

이렇듯 그 준비사업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열풍을 일으킨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김일성경기장과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곳에서 립인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1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결승경기는 다양한

한 종목의 결승경기에 올라온 모든 팀들의 선수들이 혼련을 통하여 튼튼히 갖춘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한것으로 하여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분위기를 절정에 올려세웠다.

결승경기들을 본 수많은 관람자들은 강한 정신력과 높은 체육기술을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전기간 각 도(직할시)의 응원단성원들은 응원도 경기라는 관점에서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소도구를 리용하여 글자새기기, 노래와 춤을 배합한 기백넘치고 우아한 물동형상으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종합 1등은 평양시, 2등은 강원도, 3등은 함경북도가 하였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강성국가건설로 들끓는 온 나라에 건전하고 활기에 넘친 분위기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한 종목의 결승경기에 올라온 모든 팀들의 선수들이 혼련을 통하여 튼튼히 갖춘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한것으로 하여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분위기를 절정에 올려세웠다.

결승경기들을 본 수많은 관람자들은 강한 정신력과 높은 체육기술을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전기간 각 도(직할시)의 응원단성원들은 응원도 경기라는 관점에서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결승경기의 한 장면

무릇 《우리》라고 하면 너무도 입에 오르고 귀에 익은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범상치 않게 버려서 떠날줄 모르고있다.

최근 아시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승자의 웃음과 패자의 눈물이 엮여있는것이 체육경기라고 하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람들이 목격한것은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는 선수들의 승부심만이 아니었다. 북과 남은 하나의 겨레, 우리 민족이라는것이였다.

축구, 권투, 탁구 등 공화국의 선수들이 달리는 경기장들은 남녘동포들의 《우리 선수 이겨라!》, 《우리 선

수 힘내라!》의 열렬한 응원으로 들끓었다. 관람석에 내건 《우리 선수 최고다!》의 글발은 지금도 눈에 선히 안겨있다.

아시아경기대회마당에서 울려나온 《우리》라는 그 말.

남을 불러 우리라 할수 없고 정이 없인 우리라 부를수 없다.

북과 남의 겨레는 하나의 겨레이고 달리는 부를수 없는 우리 민족임을 보여준 산화폭들이였다.

세월이 흐르면 정도 멀어

지고 그리움도 식어진다 하였다.

그러나 분리의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흘러도 멀어질수도 식어질수도 없는것이 북과 남 우리 민족의 정이며 그 리움이다.

비록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살아도 결코 남남이 될수 없는 북남의 겨레는 우리 겨레, 한식속이다.

그래서 온 겨레는 《우리》라는 그 말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변함없이 지키고 높이 추

켜드는것이다.

조국통일도 우리 민족끼리, 하나로 된 통일조국에서 가꾸어갈 미래도 우리 민족끼리.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우리》라는 그 말처럼 통일된 조국에서 북과 남 겨레가 우리 식을, 우리 형제가 되어 만복을 누리갈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울려 퍼진 통일원령의 합성은 지금도 겨레의 가슴속에 깊은 메아리를 남기며 울리고 있다.

북남은 남남이 될수 없는 하나이며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리경월

새로 평양시와 라선시가 참가함으로써 참가단위가 12개로 늘어났으며 여자축구, 장애물극복달리기, 사격, 레전도, 그네뛰기, 윗놀이와 풍안고이그어린손잡고달리기를 비롯하여 경기종목수도 14개로 늘어났다.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에서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대회상징기발, 순회우승컵, 금수방울, 선진화 등을 훌륭히 완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또한 함경북도, 평안북도,

《우리》라는 부름

수 힘내라!》의 열렬한 응원으로 들끓었다. 관람석에 내건 《우리 선수 최고다!》의 글발은 지금도 눈에 선히 안겨있다.

아시아경기대회마당에서 울려나온 《우리》라는 그 말.

남을 불러 우리라 할수 없고 정이 없인 우리라 부를수 없다.

북과 남의 겨레는 하나의 겨레이고 달리는 부를수 없는 우리 민족임을 보여준 산화폭들이였다.

세월이 흐르면 정도 멀어

세계 최대의 축산기지

- 남조선의 인터넷신문에 실린 글 - 리유일이다.

그 황무지를 개간한것에 대해 시인은 《날포/밭포/밭포/얼마나 쏟아부었으랴》라는 표현을 쓰고있다. 여기에 또한 수자 3이 동원되고있다. 사람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방풍림을 조성했다. 폭우에 대비해서는 하천정리공사를 했다. 땅 깊숙이 물도랑을 낸것은 땀을 흘려서였다. 눈이 쌓여도 땅을 덜 열게 하겠다. 땅에 수십만의 비료를 뿌렸고 밭에는 소석회를 뿌렸다. 바람 많고 비 많은 고원지대의 황무지를 그렇게 옥토로 만들어낸셈이다. 정론은 《기승부리는 눈보라에 온몸이 순간에 얼어붙고 땀방울이 그대로 얼음버께가 되는 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인명을 한점 두점 떨어냈다.》고 했다. 이어 《한밤중에 천막이 날려간줄도 모르고 별빛이 내려다보는 등판에서 새우잠을 자다.》고도 했다. 세포동관개간에 나선 사람들을 두고 정론이 《충신》으로, 《애국자》로 부르는

시 《세포동관》은 권말선 시인이 최근 발표한 시의 제목이다. 등판은 북에서 산동성이의 평평하고 넓은 곳을 칭한다. 세포동관이란 강원도 세포군일대의 구릉지역을 말하는것이다.

세포동관은 북이 강원도 세포군을 중심으로 이천군, 평강군일대에 걸쳐 조성하고있는 세계 최대의 축산기지이다. 2012년 9월에 결정되어 개간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지금 소, 양, 염소, 토끼, 돼지 등 여러 종류의 수많은 가축이 길러지고있다. 수만마리라고 했다. 축산물가공기지까지 건설되고있다. 세포동관을 대규모목장이라고 하지 않고 축산기지라고 말하는 리유다. 2015년이 완공목표라고 한다.

1 권말선시인의 시를 보면 시인이 유독 3이라는 수자에 집중하고있음이 확인된다. 첫 문장부터 3으로 출발하고있다. 《바람포/비포/눈포 합쳐서/세포라 부른다지》라는 것이 그것이다.

북은 《로동신문》 2013년 9월 20일자 《젊은이여 북반은 대지여》라는 정론을 통해 세포동관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알렸다. 세포동관은 세 방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남쪽으로 통과하는 자리에 있어 매 계절 세 바람이 분다. 정론은 바람이 일던 터지면 등판 위에서 사람이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비도 보통 많이 오는것이 아닌 모양이다. 정론에 따르면 2013년 7월 한달동안에 2012년 한해강수량과 맞먹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했다. 비나 눈이 내려도 고스란히 내려앉는것이 아니라 옆으로 휘부러진다고 했다. 폭설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구나 고원지대이다.

2 북에서 고원지대에 있는

리고 《맹기서린 눈발에 한줄 씨앗》에 가해진 《하나된 뜨거움》에 주목한다. 그리고 《뜨거움》앞에서 기어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확인되는것이 있다. 슬픔이다.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인이 시에서 자신을 《구름》으로, 《지렁이》로 그리고 소나 말이 되게 하는 형상을 가능케 한다. 가슴아린 슬픔이다. 그 슬픔이 분단의 서러움일것이라는 시를 읽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시인은 그렇게 《세포동관》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있다.

5 시인은 왜 3이라는 수자에 집중을 했던것일까? 세포라는 《세》에서 시작하여 바람, 비, 눈 그리고 세 동포, 이천군, 평강군에서 취득한것이었을것이다. 3이라는 수자가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수자라는데 착안할수 있는 대지》로 바꾸어지기까지 《거친 바람에 한줄 흙》과 《퍼붓는 비에 한줄 땅》 그

것일까. 정론에 따르면 세포동관에 양목장이 건설된것은 1946년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일제의 군마가 키워졌던 곳을 사람들의 먹거리와 입용거리를 위한 곳으로 바꾸어놓으실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48년에는 농기계를 보내 종합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세포동관은 전쟁을 맞아 폐허로 변해야 했다. 세포동관을 개간하는 과정에 무려 3만여명의 목발물이나 나왔다. 심지어는 미군방크잔해까지도 나왔다고 했다. 세포동관에 대한 개발사업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80년대에 소 80마리를 세포지구에 보냈다. 김일성주석 탄생을 맞이하여 해외동포들이 기증한 소라고 했다. 1996년부터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추진되었다고 했다. 정론은 이를 두 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세포군의 축산문제에 대해 주신 강령적지침이라고 했다.

세포동관이 북의 주요

관심지역으로 부상한것은 2012년 9월 22일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시어 개간결정을 한것이다. 세포동관이 기존 군단위축산업에서 국가적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으로 전변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도 안걸려 세포동관은 개간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정론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의 세포동관이 하늘명차이로 변했다. 정론은 《세포동관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대대적인 축산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온 나라에 룡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는 것도 밝혔다. 북이 정론 등을 통해 세포동관을 바깥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것은 그때부터였다. 세포동관개간사업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웅대한 첫 자연개조전투》라고 선전하면서, 정론은 세포동관을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시킨것에 대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이었고 간결한 유훈이었다.》고 했다. 세포땅을 두고 《대를 이어 백두산 위인 북을 받은 대지》라고 명명할것과 련동되는 대목이다.

관심지역으로 부상한것은 2012년 9월 22일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시어 개간결정을 한것이다. 세포동관이 기존 군단위축산업에서 국가적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으로 전변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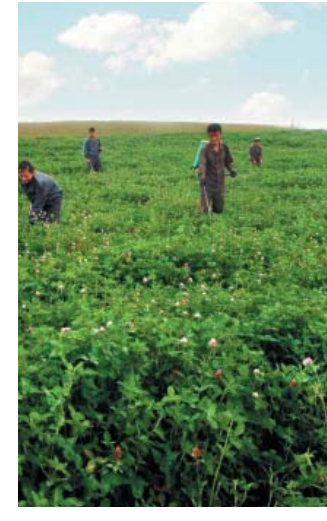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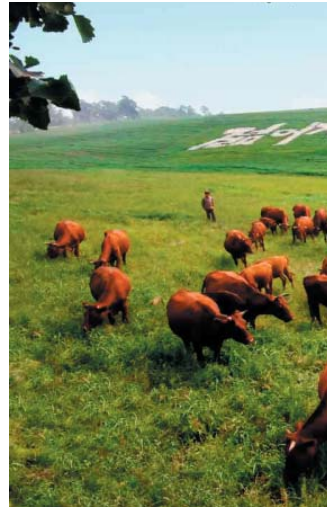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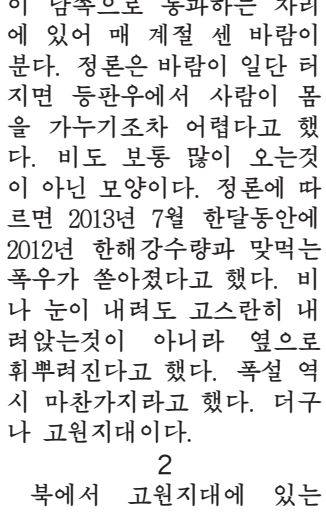
그로부터 1년도 안걸려 세포동관은 개간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정론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의 세포동관이 하늘명차이로 변했다. 정론은 《세포동관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대대적인 축산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온 나라에 룡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는 것도 밝혔다. 북이 정론 등을 통해 세포동관을 바깥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것은 그때부터였다. 세포동관개간사업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웅대한 첫 자연개조전투》라고 선전하면서, 정론은 세포동관을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시킨것에 대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이었고 간결한 유훈이었다.》고 했다. 세포땅을 두고 《대를 이어 백두산 위인 북을 받은 대지》라고 명명할것과 련동되는 대목이다.

관심지역으로 부상한것은 2012년 9월 22일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시어 개간결정을 한것이다. 세포동관이 기존 군단위축산업에서 국가적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으로 전변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도 안걸려 세포동관은 개간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정론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의 세포동관이 하늘명차이로 변했다. 정론은 《세포동관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대대적인 축산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온 나라에 룡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는 것도 밝혔다. 북이 정론 등을 통해 세포동관을 바깥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것은 그때부터였다. 세포동관개간사업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웅대한 첫 자연개조전투》라고 선전하면서, 정론은 세포동관을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시킨것에 대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이었고 간결한 유훈이었다.》고 했다. 세포땅을 두고 《대를 이어 백두산 위인 북을 받은 대지》라고 명명할것과 련동되는 대목이다.

관심지역으로 부상한것은 2012년 9월 22일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시어 개간결정을 한것이다. 세포동관이 기존 군단위축산업에서 국가적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으로 전변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도 안걸려 세포동관은 개간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정론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의 세포동관이 하늘명차이로 변했다. 정론은 《세포동관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대대적인 축산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온 나라에 룡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는 것도 밝혔다. 북이 정론 등을 통해 세포동관을 바깥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것은 그때부터였다. 세포동관개간사업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웅대한 첫 자연개조전투》라고 선전하면서, 정론은 세포동관을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시킨것에 대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이었고 간결한 유훈이었다.》고 했다. 세포땅을 두고 《대를 이어 백두산 위인 북을 받은 대지》라고 명명할것과 련동되는 대목이다.



동해기슭의 이름난 명승고적 석왕사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에 이름높은 이 땅에는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명승고적들이 많다. 푸른 파도 출렁이는 동해기슭의 강원도 고산군 실봉리에 위치하고있는 석왕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몸소 다녀가신 석왕사 일대는 오늘 공화국인민들

불이문과 그 유래

석왕사로 들어가려면 여러개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불이문이다. 불이문은 석왕사앞으로 흐르는 개울에 세운 아담한 다리집으로서 1751년에 세워졌다. 《아니불》, 《두이》, 《문문》이라고 쓰여진 불이문의 유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주제36(1947)년 9월 29일 석왕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이문앞에 이르시며 마중나는 주지에게 이 문을 왜 불이문이라고 부르는가고 물으셨다. 그 주지로 말하면 일본신학교학을 졸업하고 31년째 석왕사에서 중으로 살아오고있었다. 그이의 물음에 주지는 이

과 해내의동포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로 되고있다.

고려말-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찰인 석왕사에는 우리 선조들이 각이한 시대에 이룩해놓은 독특한 건축술과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적지 않다.

군방에 이렇게 생긴 문이 풀이 아니고 하나뿐이어서 그렇게 부르는것 같다고 자신없이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럼 자신께서 한번 풀이해보겠다고 하시며 불이문에서 사는 중들이 사는 세상은 《신성한 세상》이고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속된 세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 《신성한 세상》과 《속된 세상》을 가르는 경계문이라고 부르는것이 옳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 그럼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수 있게 되었으니 모두 함께 들어가자고 말씀하시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불이문에 대한 좋은 해석이 주어지게 되었다.



불이문

조계문

석왕사의 두번째문은 조계문이다. 지금의 조계문은 1783년에 고쳐 지은것이다. 이 문의 이름을 조계문이라고 단것은 고려말-조선봉건왕조시기 조계종에 속하는 중들이 석왕사에 기본세례를 이루고 살았던것과 관련되어 있다.

조계종은 고려종말이후 보조선국사 지눌에 의하여 창시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불교파인 선종의 이름이다. 조계종이라는 불교파이름이 처음으로 나온것은 고려 무신통치자들이 집권한 시기 부터였다. 조계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산대사(1520-1604)의 서산종으로 발전품부화되었으며 조선불교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바로 조계종에 속하는 세력들이 석왕사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교파이름을 단 조계문을 세웠던것이다.

조계문의 구조를 보면 4각 돌기둥을 좌우에 하나씩 놓고 그우에 흠뻑식나무기둥을 세운 다음 커다란 합각

지붕을 올려놓고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사기를 물리친다는 사방신을 통으로 형성하였다.

조계문의 천정은 한칸짜리 건물이나 소란반자와 빗받자를 뒀으며 합각지붕의 네곳에 전설에서 나오는 행복을 상징하는 36마리의 봉황새로 화려하게 장식한 다음 네

600년을 넘어오는 비와 느티나무

조계문을 지나면 길의 좌측에 네모난 받침돌우에 세운 비를 볼수 있다. 고려시기에 세웠다는 비에는 한자로 《대소인원하마비》라고 쓰여져있다. 말하자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말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가라.》는 뜻이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석왕사에는 수십채의 건물이 줄지어 있었고 부처만 해도 600개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런 《신성한 곳》에 어떻게 짐승의 발자국을 내겠느냐, 석왕사로 들어가는 사람은 큰

모반듯하게 가공한 화강암들을 천정우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합각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비록 2개이지만 천정에서 네모반듯 한 화강암들이 내려 누르다나니 마치도 네기둥이 있는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천정에 석가모니, 도를 닦는다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을 그려놓아 조계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있다.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말에서 내려 걸어들어가 부처를 만나보려고 해서 620년전에 세운 비이다.

그 비의 가까이에 628년자란 유명한 석왕사느티나무가 있다. 1386년에 심은 이 느티나무는 우리 나라에 있는 느티나무들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 자란 나무이다. 느티나무과에 속하는 넓은잎나무로서 겹잎은 검은 밤색이고



석왕사느티나무

비교적 매끈하다. 일명 정자나무라고도 부르는 이 느티나무는 1000년동안 사는데가 모양이 아름답고 벌레도 끼지 않는다. 지금껏 술한 사람들이 만져보

대웅전

조계문을 지나 서쪽방향으로 합각지붕의 날씬한 2층다락인 대웅전을 거쳐 석왕사의 중심구역에 이르면 대웅전의 터자리가 있다.

대웅전은 1731년에 고쳐 지은것으로서 석왕사의 중심건물이었다. 대웅전은 정면 5칸(18.6m), 측면3칸(11.1m)에 바깥 9포, 안 11포의 겹처마 합각지붕건물이었다. 이 건물에는 화려한 금단청을 입히고 문살들에 기하학적무늬를 섬세하게 새겨 건물전체가 화려한 조형예술품처럼 단장되어있다.

대웅전안에는 부처를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었고 9개의 부처가 놓여있었다. 대웅전에서 두 남너중이 정을 나누다가 그만 석왕사 주지에 틀리고말았다. 다음날 주지는 500명의 중들을 모여놓고 마당에 명석을 깔아놓게 한 다음 두 남너중을 일으켜세우고 《이제부터 지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겠다. 엄숙히 실행》 하였다. 하지만 수백명이 지켜보는 속에서 어



석왕사부도

실용성있는 새형의 레이저수술치료기 개발

최근 평양선진병원에서 개발한 새형의 레이저수술치료기가 림상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의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레이저생물의학기술, 레이저생체측정기술, 컴퓨터정밀조종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종합적으로 포괄하고있는 레이저의학은 해당 나라의 의학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속에 여러가지 용도의 첨단레이저의료설비들이 출현하고있으며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암성질환, 물결대사질환 등의 치료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번에 평양선진병원의 의료진단은 선진수준의 레이저수

술치료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데 이어 림상도입과정을 거쳐 그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였다. 일명 레이저자생물가변수술치료기라고 불리우는 이 수술장치는 레이저의 생체조직에 대한 선택적열분해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다기능화, 적용도화된 첨단의료설비이다.

새형의 레이저수술치료기로는 정상조직에는 영향을 적게 주면서 비정상조직(혹은 없애려는 생체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는데 수술시간이 비교적 짧고 출혈이 거의 없으며 창상이 적은것으로 하여 수술을 외래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빛섬유와 세밀한 빛섬유수술칼로 미세한 수술조작을 손쉽게 진행할수 있으며 수술후 흉집을 거의 남기지 않는

우점이 있다.

이 치료기를 리용하면 현재 난치성질환의 하나로 되고있는 피부질환종이나 기미, 외상후 색소침착, 입술과 같은 각종 색소이상성피부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으며 피부미용수술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다.

새형의 레이저수술치료기는 피부과는 물론 이비인후 및 두경부외과, 구강과, 부인과, 혈관외과를 비롯한 각종 전문과들에서 제기되는 미세수술과 난치성질환들의 치료에 다 적용할수 있어 도입가치가 크다.

본사기자

해별쪼이기와 건강

죽은 계절적인 정서장애를 초래하고 암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해별쪼이기를 하면 기분을 즐겁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

되고 엔도르핀생성이 촉진된다. 이것들은 가장 자연적인 항우울증약이다.

해별쪼이기를 적당히 하면 피로감이 확상되어 피소환이 촉진된다. 또한 적혈구와 백혈구수가 늘어나 인체면역계통이 강화되고 감기병이 높아져 몸안의 독소를 배출시킬수 있다.

해별쪼이기를 하면 멜라토닌이 생성되어 수면에 도움을 준다. 아이들이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해별쪼이기를 시키는것이 좋다. 가장 좋은 해별쪼이기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이다. 이때에는 자외선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사람들이 포근함을 느낄수 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의 첫 속담집 《순오지》

우리 나라에서 속담은 세나라시기부터 많이 쓰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내일 바빠 큰대방아를 서두른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력사문헌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속담인데 그때 이것을

《리언》이라고 했다. 속담은 그후 《상언》이라고 하다가 조선봉건왕조중기부터 《속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최초의 속담집은 17세기 후반 출판된 평문집 《순오지》(홍만중편찬)인

본사기자

좌우로 낚는 저고리깃

자 리구경이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책에서 좌는 남자이고 우는 여자라고 하면서 《좌는 동쪽이요, 우는 서쪽이다. 동쪽은 해가 뜨기 때문에 양방이요, 서쪽은 해가 지기때문에 음방이다. 양

본사기자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고구마를 건강과 장수를 돕는 이상적인 건강식품으로 간주하고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구마가 제2의 빵이라고 까지 불리우고있다고 한다.

주목을 끄는 건강식품 고구마

고구마는 단백질, 기름질, 탄수화물, 식용섬유를 비롯한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각종 비타민이 풍부히 함유되어있다. 흰쌀에 비해 비타민B1은 6배, 비타민B2는 13배, 비타민C는 사과나 포도에 비해 10~30배나 많다.

또한 인체의 성장발육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리진인 리칼슘이 많아져서 리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이밖에 피부보호를 막는 비타민E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량은 현미의 약 2배나 된다.

최근에 고구마에 항암작용을 비롯하여 독특한 약리작용을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것이 밝혀져 고구마가 공식식품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구마를 흰쌀이 나 밀가루음식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호상보충작용에 의해 영양가가 훨씬 높아진다.

일부 사람들이 고구마는 영양가가 높기때문에 많이 먹으면 몸이 비대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근거가 없는 견해이다. 사실상 고구마는 저에너지식품으로서 거기에 함유된 에너지를 보통 흰쌀밥에 비해 볼 때는 적은 편이다.

본사기자

음식물을 적당히 섭취하면

학자들이 진행한 연구결과는 사람이 자기 식사정량의 40%를 줄이는 경우에도 수명이 20% 늘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쥐와 초파리를 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이와 같이 결론하였다. 쥐와 초파리는 유전자

사람과 60%정도 비슷한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실험을 위해 쥐와 초파리음식이로법을 각각 작성하고 거기에 일부 약물을 포함시켰다. 실험결과 쥐와 초파리의 수명이 늘어났것으로 판명되었다.

본사기자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4)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번속은 이렇게 허두를 떼고 그때의 광경을 말하였다. 《제가 어제 개성으로 돌아와서 수창궁앞을 지날 때 친구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의금부 호부각에서 역신들을 임금이 직접 국문한다는데 구경자고 하면서 손을 잡아 끌기에 갔었습니다. 가보니 이미 국문이 시작되었더군요. 방청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큰 마당에 가득차있었습니다.

당우에 곤봉포를 입고 왕관을 쓴 눈이 우로 찌지고 하관이 빠진 표독스러운 리성계가 높은 교대로 서만히 앉아있었는데 그뒤 양옆에 선 녀차림을 한 두 개집이 대신 (큰 부채)을 들고 서있더군요. 제법 풍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놈아, 파인은 너의 예비와 친이지간이라고 해서 공과 사를 삼갈것을 아느냐. 어리석은 놈들, 그래 파인에 대한 혐담을 했다는게 사실인가? 이실직고하라!》

《우리 형제는 삼감오름을 론했음뿐이요.》 하는 죄인을 리다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무지막지한 군졸들이 달려들어 두 형제를 단두대에 끌어다놓자 형리의 구령에 따라 북소리가 동동 울리고 하

《이놈들, 삼감오름을 잘 안다는 놈들이 어찌하여 뒤에서 나라의 임금을 헐뜯었느냐?》

리성계의 물음에 형되는 사람이 곧바로 리성계를 쳐다보며 《여보, 우리 너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까짜려 말하면 너는 천하무도한 역적이다. 우리가 어제 역적을 임금으로 삼기겠는가.》 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놈아, 파인은 문무백관과 이 나라 만백성의 추대를 받아 새 왕조의 통상에 오른 나라의 군주다.》

리성계가 여기까지 말하자 두 형제는 고개를 뒤로 제끼고 크게 웃고나서 형이 《실녀차림을 한 두 개집이 대신 (큰 부채)을 들고 서있더군요. 제법 풍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리성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손가락으로 두 형제를 가리키면서 《저놈들을 당장 끌어다 목을 쳐라. 패썬 놈들.》 하고 계기를 물고 숨이 차 쉼없이 리다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무지막지한 군졸들이 달려들어 두 형제를 단두대에 끌어다놓자 형리의 구령에 따라 북소리가 동동 울리고 하

수인의 머위에서 장검이 번쩍이자 형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다군요. 이어 동생도...

《우리 만머느리야말로 너 장부라고.》 하고 양호당이 만머느리를 칭찬하였다. 《나도 집에 가서 이 말을 해주어서 우리 집에서 이 제부터는 꼭 이런 편수를 해먹게 하겠소.》 성어환이 이렇게 말하자 좌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였다.

이날 점심식사는 인차 끝났다. 양호당이 목은선생네

점심때가 되어 음식상이 차려지고 모두들 상주위에 둘러앉았으나 울적한 마음들이어서 흥취없이 술잔에 술을 붓고 촉매가 아니라 고매를 드는 심정으로 술을 마시었다. 맑은 조용조용히 하였다. 침울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때 편수국이 매사람앞에 놓여졌다. 편수국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로 양호당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떤 음식인가고 묻는듯 한 눈길이었다.

양호당도 편수그릇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편수국같은데 무슨 편수를 이렇게 빚었을까.》 하고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었다. 이게 편수국과 생김새가 다른 편수를 빚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좌석에서는 일시에 환성과 웃음이 터졌다.

《거 기발한 생각이요. 이

편수에 역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담겼으니... 신통히도 울가미같소.》

《우리 만머느리야말로 너 장부라고.》 하고 양호당이 만머느리를 칭찬하였다. 《나도 집에 가서 이 말을 해주어서 우리 집에서 이 제부터는 꼭 이런 편수를 해먹게 하겠소.》 성어환이 이렇게 말하자 좌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였다.

이날 점심식사는 인차 끝났다. 양호당이 목은선생네

점심때가 되어 음식상이 차려지고 모두들 상주위에 둘러앉았으나 울적한 마음들이어서 흥취없이 술잔에 술을 붓고 촉매가 아니라 고매를 드는 심정으로 술을 마시었다. 맑은 조용조용히 하였다. 침울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때 편수국이 매사람앞에 놓여졌다. 편수국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로 양호당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떤 음식인가고 묻는듯 한 눈길이었다.

양호당도 편수그릇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편수국같은데 무슨 편수를 이렇게 빚었을까.》 하고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었다. 이게 편수국과 생김새가 다른 편수를 빚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좌석에서는 일시에 환성과 웃음이 터졌다.

《거 기발한 생각이요. 이

도나도 편수를 즐겨 해먹게 되었다. 양호당의 집은 날이 갈수록 궁핍하여졌다. 어제날의 재상집에서는 새로운 생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만머느리 번씨가 양호당에게 자기의 의향을 말했다. 《아버님, 제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음식장사를 해볼가 하오이다.》

《아버님, 제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음식장사를 해볼가 하오이다.》

《아버님, 제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음식장사를 해볼가 하오이다.》

《아버님, 제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음식장사를 해볼가 하오이다.》

《아버님, 제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음식장사를 해볼가 하오이다.》

《아버님, 제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음식장사를 해볼가 하오이다.》

앞에 영월루가 남향하여 서있었다.

그리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만공당, 서쪽에 심검당이 마주서고 만공당쪽으로 무상당, 홍복당, 설성동루가 있었으며 심검당에 편이여 해장진, 팔상전, 명부전, 보명당, 문헌각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석왕사의 오른쪽 중심축 북쪽에 이 사찰의 기본건물의 하나였던 응진전 안에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500라한상이 놓여있었다.

석왕사에서 나온 유명한 속담

한때 석왕사에서는 300명의 남자중과 200명의 녀자중들이 《극락세계》를 즐기며 살았다고 한다. 이 나날 서로 마음이 맞는 남녀중들이 함께 하도 자주 거니는 바람에 오솔길에 풀도 돌지 못하고 통선이 3m나 낮아졌다는 말도 전해오고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날 밤 수백년지란 소나무 밑에서 두 남너중이 정을 나누다가 그만 석왕사 주지에 틀리고말았다. 다음날 주지는 500명의 중들을 모여놓고 마당에 명석을 깔아놓게 한 다음 두 남너중을 일으켜세우고 《이제부터 지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겠다. 엄숙히 실행》 하였다. 하지만 수백명이 지켜보는 속에서 어

떻게... 이렇게 되어 《지라도 정작 명석을 파놓고 하라 면 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여기 석왕사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고려말인 1386년에 응진전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50여채가 넘는 크고작은 건축물들이 들어섰던 석왕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불이문, 조계문, 설성동루, 봉비루, 인지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모두 불타버렸다. 절세위인들의 형형한 령도 밑에 오늘 석왕사의 여러 건물들이 더욱 훌륭히 보존되고있으며 이 일대는 인민들의 즐겨온 문화유산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